



크리스천 사이언스: 구원인가, 치유인가?

Christian Science: salvation or healing?

네이트 탈봇(Nate Talbot)

크리스천 사이언스 센티널 (Christian Science Sentinel)

2011 년 11 월 7 일

나는 “그렇다면, 크리스천 사이언스가 하나의 종교란 말인가 아니면 하나의 건강관리 시스템이란 말인가?”라는 식의 질문을 한 번 이상 받았다. 질문자의 의도는 보통, 크리스천 사이언스가 그리스도교와 종교의 세계에 속 하는가, 아니면 의학적 과학과 치유의 세계에 속하는가? 를 묻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종교와 치유를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 적어도 과학적인 방법으로서, 그다지 공감하지 않는다.

건강관리 산업에 종사하는 어떤 이들은 우리가 주로 건강 관리를 실천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의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려고 한다. 어떤 이들은 때로 의학적 과학이 집중적 노력을 기울이고도 실패한 이후에 무엇이 육신상 변화를 일으켰는가에 대해 흥미를 갖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혹은 구원의 측면에 관한 질문에 흥미를 갖는다. 그들은 이 가르침이 성경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미합중국 헌법 안에서 그 실시가 보호를 받는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든, 일부 사람들은 그 두 가지 개념이 공존하는 것을 보면, 아예 의아해하거나, 심지어는 거부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리스도교”와 “과학”을 결합시키는 것은 불확실함을 자극하고, 논쟁을 야기하고, 의문을 제기해 왔지만, 또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어떤 두 단어의 결합도 해내왔지 못한 식으로, 새로운 영적 미개척분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준다. 메리 베이커 에디는 이들을 “사고에 대한 어휘 가운데 가장 거대한 두 개의 단어”(No and Yes, 10 쪽)라고 하였다.

구원, 즉 하나님의 조화로운 창조는 치유를 통하지 않고는 경험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를, 구원, 그리고 내세를 포함한 다른 철학적 문제를 고려하는, 종교의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들은 과학을 아주 다른 세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오늘 날의 물질적 건강 관리 산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그런 세계로. 그들이 부분적으로 일치될 수 없다거나 또는 어떤 제한적인 범위에서 심지어 상호 협력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예컨대, 대부분의 종교적인 사람들은 의사들과 기술자들, 의약과 수술이

For this translation in English and other translations in Korean, please see

<http://translations.christianscience.com/translations/list/lang/Korean>

Translation © 2011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10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A.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A website.

치유 작용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 아주 마음 편하게 여길 수 있다. 그렇지만, 바로 이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 우리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영과 물질이라는 존재에 대한 두 개의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아마 놀랄 것이다. 그것들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창세기 제 2 장에서 매우 사실적으로 보여주듯 (영이 그것의 생명과 조화를 먼저, 즉 물질 안으로 불어 넣어준다는 믿음), 궁극적으로 실패하고 만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전혀 다른 행로를 취한다. 그것은 창세기의 제 1 장이 창조자의 진실을 제시한다고 말하는 행로이다. 영은 무한하고 그것의 창조는 전적으로 영적이다. 이 가르침은, 오로지 치유를 구원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이 진리를 드러나게 한다고 말한다. 구원, 즉 하나님의 조화로운 창조는 치유를 통하지 않고는 경험 될 수 없다. 그리고 치유의 과학은 물질적이 아니라 영적이다. 이 가르침은, 치유를 물질에 더 연관시키려 하고, 구원을 더 영의 일들로 연관시키려 하는 견해에 막대한 혼란을 가져온다. 그러나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구원과 치유를 분리시키지 않는 것에 대한 권위를 성경, 특히 신약 성경 안에서 발견한다. 사실상 그것은 실질적으로, “치유를 구원의 하나의 조건으로 삼을 것”을 주장한다. (*Miscellaneous Writings*, 192 쪽)

그리스도 예수의 일생과 행위는 치유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총체적이고 신선한 차원을 제공한다. 의술이 과학적이라고 간주되는 오늘날의 의학계에서는, 사람이 걸을 수 있게 회복되도록 돌보는 의사는, “가서 다리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세요.” 라고 할 것이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런 경우의 사람에게 하셨던,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요한복음 5:14)고 하신 말씀이 참으로 과학적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의사의 치유방식은 물질을 고치는 것을 기초로 한다. 예수님에 의해 수행되었던 그리스도적 치유는 사람의 총체적 존재를 고치는 것, 심지어는 변화시키는 것을 기초로 한다. 사실상, 예수님께는 육신을 고치는 것과 삶을 고치는 것이 함께 엮여 있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권능을 어떤 이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할 때, 그 사람의 육신 역시 변화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육신은, 인간적 생각, 우리 자신의 생각, 그리고 물질적 견해가 우리에게 강요하려는 것들의 초상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육신적 부조화가 생겼을 때, 그리스도의 의식에게로 오심—영원하며 변환시키는 신성한 작용—이 우리의 생각과 이를 표현하는 육신을 축복하고 영적으로 갱신시킨다.

의식이 더욱 그리스도적 즉 그리스도답게 되어감에 따라, 윤리적 밝음이 강화된다.

구원이란 생각과 육신을 포함한 우리 삶의 단계적 변화이다. 이 변화는 점차 증가하는 영화(靈化) – 즉 물질성을 덜 강조함이며 영성을 더 강조함이다. 그것은 삶에 대하여 덜 물질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더 영적인 행동 방식을 취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나의 단순한 예로 인내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참지 못함은 물질적으로 치우친 사고방식이다. 참지 못함을 치유하고 동정과 용서를 표현함은 더 영적인 사고방식이다.

Translation © 2011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10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S.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S website.

구원은 영성(靈性)의 증가를 나날이 발견하며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일생을 통해 문자 그대로 매 순간 오는 “심판의 날”이다. 치유는 이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 우리가 내딛는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신자에게 있어서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치유는 물질에 더 자주 연관 되고, 구원은 영적인 것들에 연관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치유란 삶의 영화(靈化)이다, - 즉 우리의 **하나님**과의 일치함을 실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사고의 변화, 즉 육신상의 조화를 가져온다. 구원은 치유의 필연적이고 완전한 결과이다.

에디 여사는 전통적인 의학의 수행과 원래의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수행 사이에는 크게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의약 대신 기도를 사용하는 치유의 효과에 그녀가 부여했던 이점의 하나는 이 영적 방법이 우리를 윤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Miscellaneous Writings* 34 쪽 참조). 실제적으로, 의약을 사용하여 치유하는 문화는 윤리적 판단을 둔하게 하거나 흐리게 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다. 사회의 약 (의학적인 약과 기분 전환용의 약 모두) 사용의 증가와 그 윤리적인 맑음의 점차적인 감소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리한 해석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의식이 더욱 그리스도적 즉 그리스도답게 되어감에 따라, 윤리적인 맑음은 강화된다. 역으로, 생각이 물질주의나 의약 쪽으로 끌려들어감에 따라 윤리적 맑음은 손상된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우리 건강의 모든 면을 돌보는 종교의 실천이다.

구원과 안녕은 분리되어서는 안되며 궁극적으로 그리 될 수도 없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이 실천하셨던 치유의 영적 과학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한 결과로 무엇이 윤리적이고 무엇이 비윤리적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을 가리게 되어,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사회에 불안정성을 가져온다.

그리스도교와 과학은 지극히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교는 구원의 종교이다. 그리고 구원은 치유의 과학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얻어진다. 물질성과 필멸성이 강요하는 모든 한계를 치유한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우리 건강의 모든 국면을 돌보는 종교의 실천이다. 그것은 건강이 구원으로 가는 문턱임을 밝혀주는 건강관리 시스템이다. 이것은 육신적 건강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영적 건강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성을 벗어나 성장함에 따라, 우리는 영적 건강이 궁극적인 건강임을 발견한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보존하는 - 건강이 **그분**의 영적 존재들로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나타내는 - 종교이다.

우리가 구원과 건강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행진하도록 놓아 두면, 둘 모두 우리의 삶 안에서 감소할 것이다. 점차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느낌과 건강에 대한 느낌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영적 치유가 증가함에 따른 놀라운 성과라고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바울이 “우리가 처음 믿은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음이라.”(로마서 13:11)고 주장했던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다.

네이트 탈벗은 크리스천 사이언스 프랙티셔너이며 선생이고, 모교회의 서기이다.